

#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 자녀의 성차 중심으로 -

Effects of the Father's Experiences from His Family-of-Origi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Behaviors on His Child's  
Behavioral Problems as a Function of the Child's Sex\*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문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전연진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Chung, Moon Ja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

*Researcher* : Chun, Yeun Ji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father's experiences from his family-of-origi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behaviors on his child's behavioral problems, as well as any differences due to the child's sex. The subjects were 837 dyads of 4th and 5th graders in six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fathers in Seoul and Pusa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o verify the theoretical models among the variables.

Corresponding Author: Moon Ja Chung,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udaemon-k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9  
E-mail: mjchung@yonsei.ac.kr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1- C00314).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thways of the impact of the father's experiences from his family-of-origin differed, depending on the father-son group and the father-daughter group, upon the 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rough marital conflict and the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s. Firstly, in the father-son model, the father's experiences from his family-of-origin had an impact on the so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rough marital conflict and the his negative childrearing behaviors. Secondly, the father-daughter model exhibited two pathways: the father's experiences from his family-of-origin had an impact on the 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rough his negative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 father's experiences from his family-of-origin had an impact on the child's 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rough marital conflict and his positive childrearing.

**주제어(Key Words):**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father's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of-origin), 부부 갈등(marital conflict), 자녀양육행동(child-rearing behavior),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 1. 서론

아버지의 역할과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이론들이 1970년대부터 외국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어머니의 영향과 분리하여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연구하는 흐름이 있다(Amato & Rivera, 1999; Jones, Forehand, & Beach, 2000).

일반적으로 자녀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이 자녀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장과 관련된 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다. 이중 아동의 행동문제와 가족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연구 결과 부모의 배척, 신체적 처벌, 강압적인 명령과 거부, 무관심,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행동은 공격성, 비행과 같은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Brubach, Kashani, & Rosenberg, 1989;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및 내면화 행동문제(Asarnow, Carlson, & Guthrie, 1987; Burbach & Borduin, 1986)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으로 부부갈등이 제기되어 왔는데, 부부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모델링과 같은 기제를 통한 직접적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한편 체계이론에 근거한 다세대적 이론에 의하면(Boszormenyi-Nagi & Ulrich, 1981; Bowen, 1978),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자신이 원가족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의해 영향 받는다. 원가족에서 낮은 수준의 분화를 경험한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디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Lawson & Brossart, 2001), 부모로서 자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는 자녀와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하며(유은희·전춘애, 1995), 일관성 있는 규제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희선, 1995). 반면 가족 분화 수준이 높은 부모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즉 부모가 배우자에게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배려를 하는 한편(Sabatelli & Anderson, 1991) 자녀와 통제와 권위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다(Anderson & Sabatelli, 1992). 또한 부모가 정서적 단절 경험이 적을수록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문희선, 1995).

이상의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은 부부갈등과 자녀의 양육행동과 같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쳐 행동문제를 유발

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는 부모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과정변인을 중심으로 그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를 유발하게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정변인을 연구한 학자들은 부모 중에 점차 아버지의 독자적인 영향을 인식하면서 자녀에게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에게서 분리시켜 살펴보게 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성의 조합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예: Bartle-Haring & Sabatelli, 1998; Snyder, 1998).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성이 그들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Cowan, Cowan과 Kerig(1993)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유사하게 대했으나 아버지는 딸을 더 권위주의적으로 대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자들은(Osborne & Fincham, 1996; Peterson & Zill, 1986)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더 많이 철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자녀 관계가 어머니-자녀관계보다 부부갈등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자녀의 성에 따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2004)가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와 자녀간에 성을 조합하여 각 쌍의 경로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이 아들과 딸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서로 다른 반면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은 아들과 딸에게 유사한 경로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버지는 가족관계나 자녀의 행동문제에 어머니와는 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영향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버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및 자녀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경로가 자녀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연구문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며, 이 경로는 아버지-아들 집단과 아버지-딸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가설

1.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부갈등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부부갈등은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부부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1.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2.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1.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2.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지역별 아버지의 인구학적 배경 (N=837)

변인		지역		
		서울 (n=441) 빈도(%)	부산 (n=396) 빈도(%)	
아동	성별	남 229(51.9) 여 212(48.1)	남 192(48.5) 여 204(51.5)	
	연령	30대	74(16.8)	73(18.5)
40대		339(76.9)	298(75.7)	
50대		19(4.4)	14(3.5)	
무응답		9(1.9)	11(2.3)	
학력	중졸이하	18(4.1)	23(5.8)	
	고졸	213(48.3)	236(59.9)	
	대졸	168(38.1)	108(27.4)	
	대학원이상	35(7.9)	18(4.6)	
아버지	직업	무응답	7(1.6)	11(2.3)
		노무 및 기술직	43(9.8)	69(17.5)
		판매 및 서비스	117(26.5)	86(21.8)
		사무직	129(29.3)	112(28.4)
		관리직	40(9.1)	23(5.8)
		전문직	58(13.1)	31(7.8)
월가계수입	기타	41(9.3)	64(16.4)	
		무응답	13(2.9)	11(2.3)
		100만원 미만	8(1.8)	8(2.0)
		200만원 미만	9(1.9)	93(23.6)
		300만원 미만	104(23.6)	149(37.9)
300만원 이상	217(49.2)	118(29.8)		
	무응답	33(7.5)	28(6.7)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각각 세 개 초등학교씩 총 여섯 개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생 368명(남아 197명, 여아 171명)과 5학년생 469명(남아 224명, 여아 245명)의 총 837명과 그들의 아버지 8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대상 아동의 성별구성은 남아가 50.3%, 여아가 49.7%였고, 학년별 구성은 4학년이 43.7%, 5학년이 56%였다. 아버지의 연령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서울과 부산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졸이었으며, 직업 또한 서울과 부산 모두 사무직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직의 순서

였다. 가계의 월수입의 경우 서울은 300만원이상(49.2%)이 가장 많았으나 부산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준(37.9%)이 가장 많았다.

### 2. 측정도구

#### 1)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경험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경험을 살펴보고자 전연진·정문자(2003)의 원가족 분화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에는 '정서적 단절'(12문항), '삼각화'(7문항), '정서적 분리'(7문항)가 있다. 각 하위영역별 내용과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단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문항들로는 '나는 어릴 때 아버지(어머니) 때문에 차라리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다투기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삼각화'는 세 사람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에서는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부모님끼리 싸우면 아버지(어머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셨다', '아버지(어머니)는 어머니(아버지)와 다투거나 싸우고 나서는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등이 있다. '정서적 분리'는 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속하는 문항들에는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의견이 달라도 항상 그분을 존경했다', '나는 보통 화를 내지 않고도 아버지(어머니)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문항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산출 방법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족 분화경험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전체 문항의 경우 .88, 하위영역별로는 정서적 단절 .94, 삼각화 .91, 정서적 분리 .73이었다.

##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어주경·정문자(1999)가 번역, 수정하여 사용한 Porter와 O'Leary(1980)의 O'Leary-Porter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 문항의 5점 척도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아버지 보고는 .79, 어머니 보고는 .78이었다.

## 3)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가 개발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중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80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응답하기에 문항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하위영역들인 온정·수용행동, 거부·제재행동, 허용·방임행동의 세가지 행동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10개 문항씩 총 30개 문항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사각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기존 도구와 동일하도록 하고자 3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I이 온정·수용행동으로 6.81, 요인 II는 거부·제재행동으로 3.90, 요인 III이 허용·방임행동으로 2.44였으며, 설명변량은 각각 22.71%, 12.99%와 8.14%로 나타났다. 본 도구는 4점척도로 구성되어 각 하위 행동별로 10점에서 4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질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그러한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자녀가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남아, 여아별 하위영역에 따라 .80~.92였다.

## 3)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YSR의 119문항 중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해당하는 6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은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6문항이며, 이 중 위축과 우울·불안 영역에 공통된 한 개 문항이 있어 내면화 행동문제는 총 31문항이다. 그리고 외현화 행동문제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의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

K-YSR의 각 문항은 아동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위축이 0점에서 14점, 신체적 증상이 0점에서 18점, 우울·불안은 0점에서 32점이며, 비행은 0점에서 22점, 공격성이 0점에서 38점이다. 따라서 내면화 행동문제의 총점 범위는 0점에서 62점, 외현화 행동문제는 0점에서 6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YSR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도구 전체에 대해서는 .90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내면화 행동문제는 .87, 외현화 행동문제는 .8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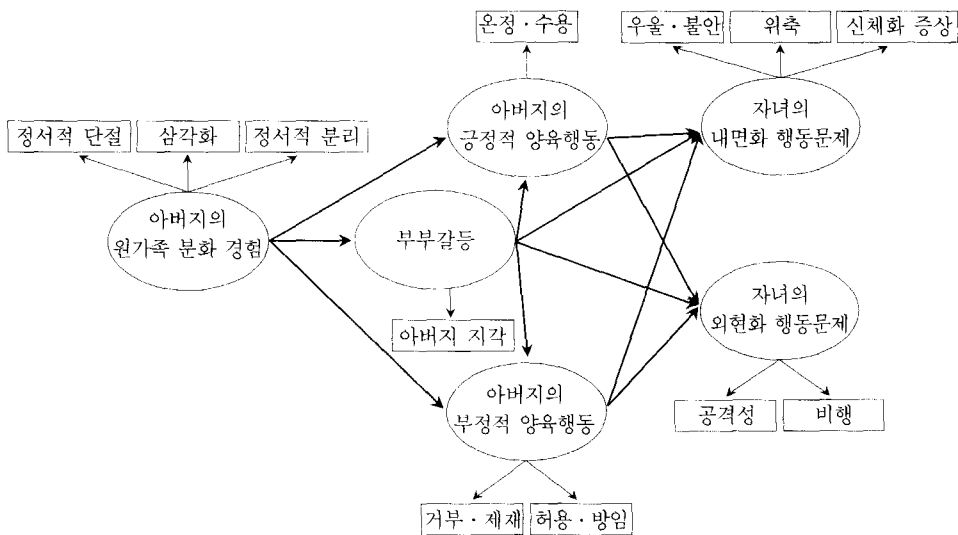
### 3.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본 조사의 연구 대상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여섯 개 초등학교의 4, 5학년 아동 837명과 그들의 아버지 837명으로, 아동용 질문지는 각 학급의 교사가 실시·수거하였으며, 아버지용 질문지는 학교를 통해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아버지용 질문지는 1315부

가 배포된 중 88%의 회수율로 1158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아동이 실제로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지 않거나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원가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버지와 아동 837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먼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은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이론변인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 및 외현화 행동문제였다. 각 이론변인의 측정변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그림 1>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로 측정하였고, 부부갈등은 아버지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으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은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행동문제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는 공격성, 비행으로 측정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의 하위 영역인 정서적 분리, 삼각화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단절의 평균 점수는 47.34점으로, 이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의 문항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2점 이하이다. 이는 2점인 '별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가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삼각화 영역에서도 유사하여 아버지는 원가족에서 별로 삼각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분리 영역은 문항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으로 아버지가 원가족에서 보통 이상의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평균 점수가 22.38점으로 문항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2.24점이었다. 이는 2점인 '거의 그렇지 않다'와 3점인 '가끔 그렇다'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대상인 아버지들은 부부갈등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행동에서는 문항평균점수가 '아주 다르다(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4점)'의 4점 척도 중 3점인 '대체로 비슷하다'였고, 거부·제재적 행동과 허용·방임적 행동에서는 문항 평균점수가 1.5점 이상 2.0점미만으로 2점인 '별로 비슷하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는 아버지가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거부·제재적 행동과 허용·방임적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행동문제에서 나타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 총점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아의 평균 점수는 13.75점, 여아의 평균 점수는 13.91점으로 이를 '전혀 아니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의 문항 평균점수로 전환하면, 남아 0.50점, 여아 0.48점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내면화 행동문제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인 우울·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역시 총점의 남아 평균 점수가 13.77점, 여아 평균 점수가 11.59점으로 문항 평균 점수가 3점 척도 중 1점 미만으로 나타나 외현화 행동문제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하위영역인 비행과 공격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837)

측정변인	보고자	가능 점수범위	아버지(n=837) 평균(표준편차)	
			남아 (n=421) 평균 (표준편차)	여아 (n=416) 평균 (표준편차)
원가족 경험	정서적 단절	24-120	47.34(17.57)	
	삼각화	14- 70	25.27( 8.74)	
	정서적 분리	14- 70	47.33( 9.00)	
부부갈등	아버지보고	10- 50	22.38( 4.97)	
측정변인	보고자	가능 점수범위	남아 (n=421) 여아 (n=416) 평균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남아 (n=421) 평균 (표준편차)	여아 (n=416)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양육행동	온정·수용	10-40	30.43(7.07)	31.34(6.88)
	거부·제재	10-40	16.60(5.50)	14.83(4.72)
	허용·방임	10-40	18.61(5.06)	18.96(5.05)
내면화 행동문제	우울·불안	0-32	7.40(5.14)	7.81(5.76)
	위축	0-14	3.33(2.67)	3.14(2.64)
	신체화 증상	0-18	3.43(2.95)	3.49(3.07)
	총 점	0-62	13.75(8.65)	13.91(9.39)
외현화 행동문제	비행	0-22	2.72(1.94)	1.99(1.73)
	공격성	0-38	11.05(5.46)	9.61(5.19)
	총 점	0-60	13.77(6.74)	11.59(6.39)

1.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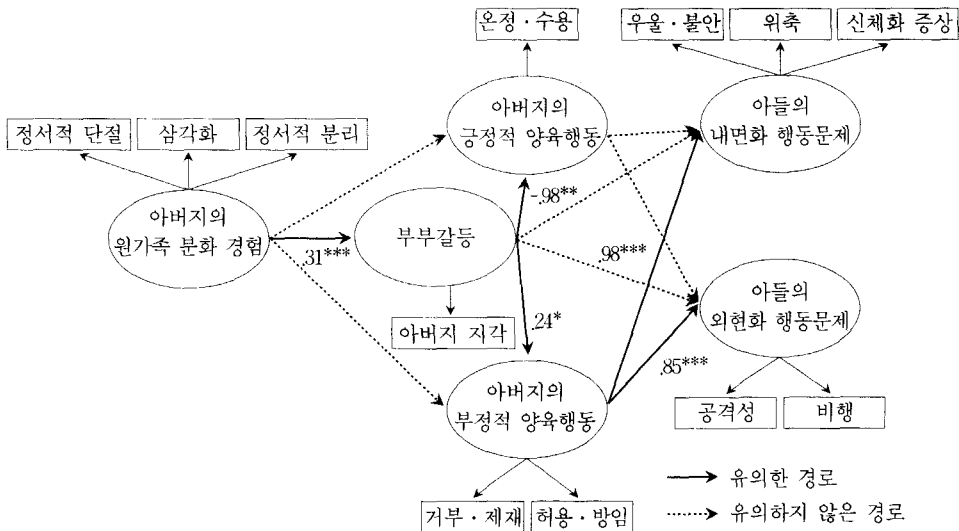
아동집단의 성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먼저 남아, 여아집단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구조방정식 모형을 산출한 후 중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한 모집단의 모수와 다른 집단의 모수간의 비교가 가능한 방법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hi^2$ , 표준카이자승치( $\chi^2$ 를 자유도로 나눈 비), GFI, AGFI, NNFI(Non-Normed Fit Index, 또는 Tucker-Lewis Index: TLI),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적합도 지수의 판단기준은  $\chi^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여 자료가 클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카이자승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그 값이 5 이하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Tanaka, 1987). GFI, AGF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RMSEA는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괜찮은 적합도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공통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379.7(df=116, p=.00)$ 이며, 표준카이자승치는 3.27, GFI=.94, AGFI=.90, CFI=.91, RMSEA=.05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공통 모형을 기초로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의 결과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아버지-아들집단

아버지-아들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2),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의 부부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가 심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나 거부·체제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 반



\* $p<.05$ , \*\* $p<.01$ , \*\*\* $p<.001$

<그림 2> 아버지-아들집단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



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간 부부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적게 하고,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 3-2는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아들의 행동문제에 미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1, 4-2는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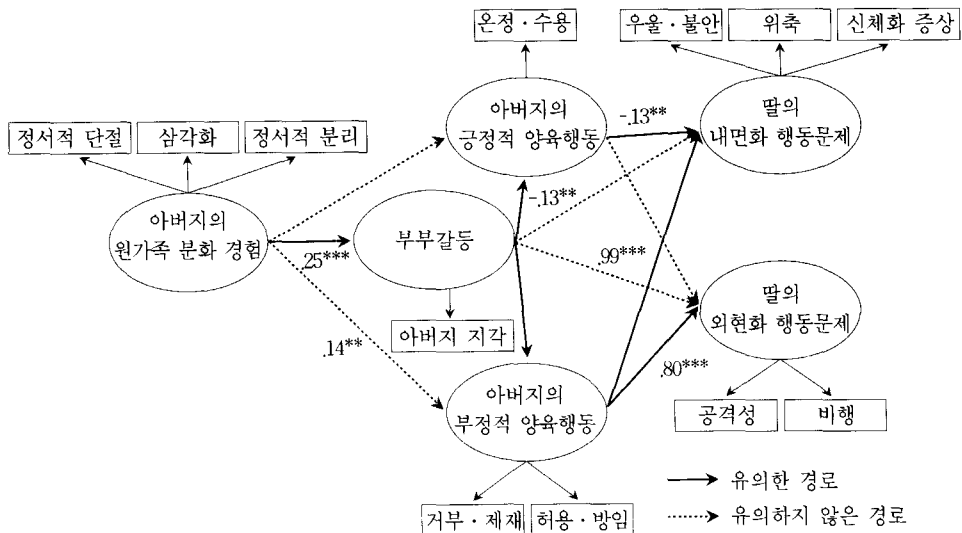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들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들의 내면화 행동문제나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1, 5-2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버지가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들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6-1, 6-2는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들의 행동문제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나 부부갈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아버지-딸집단

아버지-딸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3), 먼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의 부부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가 심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는 딸에게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고, 2-2는 지지되었다.



\*\* $p < .01$ , \*\*\* $p < .001$

〈그림 3〉 아버지-딸집단에 대한 결과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딸에 대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부모간 부부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아버지는 딸에게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었고, 3-2는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딸의 행동문제에 미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설 4-1, 4-2는 지지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딸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딸의 내면화 행동문제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딸에게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딸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따라서 가설 5-1은 지지된 반면, 5-2는 지지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버지가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딸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6-1, 6-2는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이나 아버지의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행동문제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자녀 성별 집단간 비교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에서 나타난 경

로를 비교해 볼 때 이 두 집단간에서 나타난 결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 모두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한 반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두 집단 모두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두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아들집단에서는 아버지 분화 경험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아버지-딸집단에서는 그 경로가 유의하였다. 둘째,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아들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던 반면 아버지-딸집단에서는 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아들집단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들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아버지-딸집단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이 딸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경로가 자녀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간에 세부적 경로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체적인 경로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아들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차례로 거쳐 아들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반면 아버지-딸집단에서는 두 가지의 경로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차례로 거쳐 딸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거쳐 딸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간 경로를 비교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중 먼저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면, 먼저 이러한 차이점을 구성하는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후 공통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차이점에 있어서는 첫째,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부정적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아들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부부갈등을 통해 아들에 대한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간접 영향은 유의하였다. 반면, 아버지-딸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딸에 대한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만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지식 정도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Norment와 Chappell(2004)의 견해에 비추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아버지는 자신도 아들이었던 까닭에 동성인 아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아들을 양육함으로써 과거 원가족 부모가

보여준 상호작용 유형이 현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아버지는 딸을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딸이 이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실마리를 알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딸을 양육할 때에는 아버지의 현재 경험보다는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상호작용 방식을 활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딸에 대한 양육행동에 전수되어 나타났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정문자와 동료들, 2004). 본 연구결과에서 특히 의의가 있는 결과는 아버지-아들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아들에 대한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는 점이다.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정문자와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아들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들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체계의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봄으로써 아버지-아들집단에서도 가족관계의 세대간 전수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을 거쳐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부갈등이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아들집단의 경우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부적 영향을,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부정적 양육행동은 더 많이 하고, 긍정적 양육행동은 덜 하였다. 반면 아버지-딸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만 부적 영향을 미쳐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버지는 딸에 대해 긍정적 양육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준화된 경로계수로 비교해 보면, 아버지-아들집단의 경우 부부갈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와 부정

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각각  $-.98$  ( $p < .001$ ),  $.24$  ( $p < .001$ )인 반면 아버지-딸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유의하였고, 그 계수도  $-.13$  ( $p < .01$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부부갈등을 심하게 지각할수록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함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갈등이 있을 경우 아버지-아들 관계보다 아버지-딸 관계가 더 취약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다(Howes & Markman, 1989; Snyder, 1998).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그 영향은 상대 배우자를 연상케 하는 이성 자녀에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오히려 동성인 아들에게 더 부정적이고 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대해왔던 행동유형을 들어 설명해 보자 한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남아는 여아와 달리 아기일 때부터 부모들이 거칠게 다루었으며, 특히 아버지가 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Lippa, 2002). 또한 부모는 딸보다는 아들을 신체적으로 더 많이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Lytton & Romney, 1991; Maccoby & Jacklin, 1974), 아들의 장난기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더 통제하기도 한다(Maccoby & Jacklin, 1974). 이와 같이 아버지는 일상에서 딸보다 아들을 덜 조심스럽게 대하고, 통제적, 처벌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Norment & Chappell, 2004). 따라서 부부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조심스러운 딸보다는 평소 다소 강하고 거칠게 관계를 맺었던 아들에게 더 강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스트레스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부갈등이 아버지-딸 관계보다 아버지-아들 관계에 더 부정적 영향을 줘에도 불구하고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오히려 아들보다 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해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아버지-

아들집단과 아버지- 딸집단 모두 유의하였고, 그 경로계수의 크기도 비슷하였다. 반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부적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아버지-딸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부부갈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아버지-아들집단이 아버지-딸집단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딸의 내면화 행동문제에만 유의하였고, 아들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 Crockenberg & Forgays(1996)의 연구에 따르면, 딸은 아들에 비해 부부갈등 상황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 더 화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딸은 아들에 비해 더 민감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부부갈등의 영향으로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대함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버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느껴 아버지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이성부모-자녀간의 부정적 관계가 동성 부모-자녀 관계보다 내면화 문제와 더 강하게 관련이 있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Osborne & Fincham, 1996). 그러나 딸이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기제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아들보다 딸의 행동문제에 더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이 유의한 반면, 딸은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아들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아들 관계에는 현재 부부체계의 관계가 중요하며, 딸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딸 관계에는 현재 가족의 부부체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 원가족에서 아버지가 맺었던 관계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

을 경우 아들에 비해 딸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원가족에서 경험한 과거 가족관계 경험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두 집단간의 공통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아버지-아들집단과 아버지-딸집단 모두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전연진, 정문자(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 효과 뿐 아니라 직접 효과도 미친다는 선행연구(Fincham, 1998; 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Kitzman, 2000)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실제 갈등 양상보다 자녀가 부모간의 부부갈등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Harold et al.,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부부갈등을 평정한 점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 모형을 구성할 때 이론적 변인인 부부갈등의 측정변인으로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점수와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점수를 함께 고려하여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모델링, 가족 정서분위기와 같은 직접 영향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같은 상호작용을 거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관찰확습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한 체계의 붕괴가 다른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

부관계가 기능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결과가 누적되어야 하는 분야인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갖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정문자와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연구(2004)를 토대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진행함으로써 가족의 각 하위체계들을 거쳐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족관계의 세대간 전수가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통념적인 가설로는 생각되어 있으나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았던 부모, 자녀간의 성에 따른 관계 차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향후 실제 가족치료나 기능적 가족관계를 돕는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의 모형은 자녀의 특성 변인, 부모의 특성 변인, 가족외적 변인 등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가족과정 변인들로 구성되며 원형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변인들간의 일방적 관계만을 검증한 것이며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단적인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의 경로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참여자들이 과거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야 했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응답자의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본 모형은 자녀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모형 중 가족변인들을 중심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본 모형이므로 향후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자녀의 특성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모형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 미시적인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을 둘러싼 학교, 지역사회 등 보다 큰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서시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보는 측면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 문희선(1995).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 양육 태도의 관계 -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199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어주경, 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0(2), 21-40.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유은희, 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 전연진, 정문자(2003).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8), 139-158.
-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Amato, P. R., & Rivera, F.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75-384.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Asamow, J. R., Carlson, G. A., & Guthrie,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oszormenyi-Nagy, I., & Ulrich, D.(1981). Contextu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vol.1). New York: Brunner/Nazel.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Inc.
- Brubach, D. J., Kashani, J. H., & Rosenberg, T. K. (1989). Parental bonding and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417-429.
- Burbach, D. J., & Borduin, C. M. (1986). Parent-child relations and the etiology of depression: A review of method an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133-153.
- Cowan, P. A., Cowan, C. P., & Kerig, P. K. (1993). Mothers, fathers, sons, and daughters: Gender differences in family formation and parenting style. In P. A. Cowan, D. Field, D. A. Hansen, A. Skolnick, & G. E. Swanson(Eds.), *Family, self, and society: Toward a new agenda for family research*(pp. 165-195). Hillsdale, NJ: Erlbaum.
- Crockenberg, S., & Forgays, D. K. (1996).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understanding and emotional reactions to marital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 22-47.
- Cummings, M., &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Fincham, F. D. (1998). Child development and marit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2), 543-574.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 108, 267-290.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Hart, C. H., Nelson, D., Robinson,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ows, P., & Markman, H. J. (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 1044-1051.
- Jones, D. J., Forehand, R., & Beach S. R. (2000).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Forecasting early adult psychosocial adjustment. *Adolescence, 35*(139), 513-530.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Lawson, D. M., & Brossart, D. F.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dividuation and intimacy across three generations. *Family Process, 40*(4), 429-442.
- Lippa, R. A. (2002). *Gender, Nature, and Nurtur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ytton, H., & Romney, D. M. (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67-296.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Norment, L., & Chappell, K. (2004). Parenting: How parents influence the way sons and daughters view their dates, spouses and the world. *Ebony, 58*(8), 35-40.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1), 48-75.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nyder, J. R. (1998).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What about gender? *Developmental review, 18*, 390-420.
- Tanaka, J. S. (1987). How big is big enough? Sample size and goodness-of-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latent variables. *Child Development, 58*, 134-146.

(2004년 8월 31일 접수, 2004년 11월 15일 채택)